

## 대학입시 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소고



이 종 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대학입시에 관한 문제는 어김없이 제기되었고,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되풀이하였다. 그 동안 대학입시 제도는 큰 줄거리만 열두 번도 더 바뀌었으며, 세부 사항의 변화는 거의 해마다 있어 왔으며 그 때마다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005학년도부터는 또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내용과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어 있다. 입시제도의 변천은 정치·사회 등의 변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광복 이후 사용되었던 주요 대학입시 제도를 그 적용된 시기에 따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별 단독시험제

- 대학별 단독시험, 무시험전형 병행제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 대학입학 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제
- 대학입학 학력고사 + 고교내신제
- 대학입학 학력고사 + 고교내신 + 논술고사제
-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교내신 + 대학별고사 병행제
- 수시입학, 정시입학 대학자율 선택제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과 타율, 간섭과 방임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각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일임했는가 하면, 대학측에서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종 부정과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정부 당국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

오늘날 대학교육은  
과거와 같은 엘리트 지향적 교육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의 요구를 대학체제에 수용하는  
대중 지향적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 제도에서 강조되어야 할 원칙도 다양성, 자율성, 공공성 등이다.

”

둘째, 대학입시에서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적용시켜 보았다는 사실이다. '대학별 단독시험제', '국가고사제', '무시험 전형', '예비고사'와 '본고사제', 입학시험 시기를 '전기-후기'로 나누었는가 하면, '선시험-후지원' 혹은 '선지원-후시험'의 방법 등등 가능한 온갖 제도와 방법을 모두 경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대학들은 다종다양한 입시제도와 방법의 시험 무대가 된 셈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개혁 과정에서 반성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 1) 일관성의 결여 :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는 원칙이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그간의 대학입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교육철학의 빈곤 내지는 부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졸속과 조령모개의 극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정부 주도의 획일화 :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해당 대학 총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으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입시에서는 대체로 정부 당국이 관장하는 획일적인 제도와 방법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 적용시키려 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 3) 즉흥적 대중요법식 처방 : 대학입시의 개혁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때 그때의 임기응변적 수정·보완이거나 대중요법과 같은 단편적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 4) 객관성과 신뢰성의 지나친 강조 : 객관성과 신뢰성은 물론 선발고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본 속성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본연의 타당성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이제 과거와 같은 엘리트 지향적 교육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또한 동시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의 요구를 대학체제에 수용하는 대중 지향적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의 대학교육 또한 좀더 대중 지향적 성격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학입시 제도에서 강조

---

되어야 할 원칙도 다양성, 자율성, 공공성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 대학입시 제도도 자율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 발전의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대학교육은 여건정비기, 양적팽창기, 제도개혁기를 거쳐서 이제는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실 있게 성장 발전해야 할 단계이다. 정부 당국에서도 그 동안 통제와 간섭으로 일관한 방침을 바꾸어 앞으로는 대학에 대해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을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학입시 제도는 다양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선발 준거를 설정해서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 지향적 대학교육 시대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능력이나 학력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능력 이외의 준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발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어떤 획일적이고 일원화된 것에 맞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은 타당성 제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 하나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모두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한 느낌이 다. 대학입학시험의 일차적 기능인 적격자 선발이라는 기본 목적 이외에,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회정의 실현, 대학의 자율성 확보, 사교육비 경감 문제 등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어떠한 제도나 방법도 이러한 목적을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수학의 '적격자'를 잘 가려낼 수 있는 선발적 타당도가 높고, 중등학교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타당도가 높은 대학입시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 이종승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교육평가를 전공하였다(Ph.D.). 한국교육평가학회장, 미국 이이오와 대학교 객원 교수, ACT 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교육연구법』, 『교육과정과 수업의 원리』 등이 있다.